

부산 “북극항로 새 성장축 삼고 산업은행 전체 이전 추진”

제1회 부산 타운홀 미팅 개최
신산업 육성 등 5개 정책 의제 논의
전재수 부산시장, 전방위 설득 나서

부산시가 14일 오후 2시 동구 아스티호텔 부산 그랜드볼룸에서 ‘시민과 함께 만드는 해양수도 부산’을 슬로건으로 제1회 ‘부산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부산의 미래, 바다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행사에는 해양 분야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 50여 명, 공개 모집으로 뽑힌 시민 100여 명과 전문가 50여 명 등 총 1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미팅에서는 ▲국가 해양정책 중심도시 도약 ▲글로벌 해양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해운·물류 경쟁력 강화 ▲미래 해양 신산업 육성 ▲북극항로 선도 도시 도약 등 5대 정책 의제를 논의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부산 청사 이전을 마쳤고, 국회를 통과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에는 ‘부산은 해양수도’라는 문구가 처음 명문화됐다. 정부는 올해 9월 북극항로 첫 시험 운항에 이어 2030년 정기 운항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어, 이번 의제 논의에도 초관



부산시가 14일 동구 아스티호텔 부산 그랜드볼룸에서 ‘시민과 함께 만드는 해양수도 부산’을 슬로건으로 제1회 ‘부산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부산시

심사였다.

전재수 시장은 해양수도 부산, 미래를 말한다’를 주제로 비전을 발표하고, 이어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이 해양수도 부산, 현장에서 제안하다’를 주제로 정책과제와 발전 방향을 제안하고,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하다’ 순서를 통해 시민과 시장이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다.

전재수 시장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과 관련하여서는 대통령과 국토교통부장관, 대통령실 정책실장, 산업은행 회장 등을 잇따라 만나며 전방위적인 설득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일부 기

능 이전이 아닌 산업은행 전체를 부산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전 시장은 “산업은행이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해 국토부 장관도 만나고 대통령실 정책실장, 산업은행장, 대통령도 만났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공식·비공식 채널을 총동원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다”며 “아예 통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재수 시장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부산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이다. 전 시장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북극항로에 주목했다. 최근 북극항로 물동량 증가와 세계 각국의 관련 투자를 언급하며 새로운 상업 항로를 둘러싼 경쟁이 이미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산항의 환적·컨테이너 처리 능력과 글로벌 항만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꼽았다. 기존 남방항로와 미주항로, 앞으로 활성화될 북극항로가 부산을 중심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재수 시장은 ‘대한민국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하는 힘은 결국 시민에게서 나온다고 했다. “전문가와 현장의 제안,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해법을 찾아 미래 대한민의 중심, 해양수도 부산’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이번 해양 분야를 시작으로 주요 시정 현안을 주제로 부산 타운홀 미팅을 차례대로 열어 시민과 함께 정책을 만드는 소통을 넓혀갈 계획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metro

지역 이모저모

부산시

영도에 ‘K-OceanX’ 개소

부산 영도 동삼혁신지구에 해양 연구기관과 기업을 연결하는 산학연 협력 거점 ‘K-OceanX’가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부산시는 14일 오후 4시30분 영도구 동삼혁신지구에서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 K-OceanX 개소식을 열고 해양 특화 연구개발(R&BD)과 기업 성장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센터는 부지 5868㎡, 연면적 1만385㎡ 규모의 지하 1층~지상 7층 건물로 조성됐다. 기업 입주공간과 연구개발실, 오픈라운지, 회의실, 세미나실 등을 갖춰 해양 관련 공공기관·대학·연구소와 기업 간 협업을 지원한다.

/부산=이도식 기자

부산관광공사

SDGs경영 국제인증 획득

부산관광공사가 전국 공공기관 최초로 ‘ISO/UNDP FDIS 53001:2026 지속가능발전목표 경영시스템’ 국제 인증을 받고, 인증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ISO 53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유엔 개발계획(UNDP)이 함께 개발 중인 국제 표준으로, SDGs이행을 경영방침·목표·성과 지표(KPI)와 연계해 계획(Plan)-실행(Do)-점검(Check)-개선(Act) 순환 체계로 관리하도록 한다. 아직 정식 발간 전 최종국제표준안(FDIS) 단계로, 선언에 머물기 쉬운 SDGs 경영을 심사·인증으로 검증받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경주, 전국 유일 ‘2개 메가 관광권’ 선정

김해공항·대구공항 관광권 지정
2027~2030년 중장기 실행계획 마련

경북도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방공항 중심 5대 관광권(메가 관광권)’ 육성 사업에 신청한 김해공항 관광권과 대구공항 관광권이 모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경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 관광권에 복수 지정됐다.

김해공항 관광권은 부산~경주~울산~거제·통영, 대구공항 관광권은 대구~안동~경주를 잇는다. 경북도는 이번 선정을 통해 대구와 부산·울산·경남을 아우르는 초광역 관광 소비권을 확보하게 됐다.

정부의 메가 관광권 육성은 지방공항이 있는 관문 도시와 특화 관광자원을 갖춘 연계 도시를 연결해 관광 골든 루트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통합 브랜드·해외 홍보, 공항 연계 외국인 관광객 유

치, 교통·결제 편의성, 특화 콘텐츠, K-한류 관광, K-푸드 로드, 기항지 관광 등을 지원한다. 2027년 국비 659억 원과 지방비 276억 원 등 총 935억 원이 투입된다.

경주시는 올해 7월 글로벌 관광특구 선정에 이어 메가 관광권까지 확보했다. 안동시도 대구공항 관광권 지원 사업에 포함됐다. 이번 선정에서 제외된 포항은 2028년 영일만항 본격 개항 시 크루즈 기항지 연계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연구원, 경북문화관광공사와 관광권 사업을 구상하고 대구시·부산시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왔다. 올 하반기에는 문제부, 한국관광공사, 관계 지자체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중장기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관광권 육성에 나설 방침이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포항시는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가 14일 체인지업 그라운드 포항에서 ‘2026 부스트 데이(2026 BOOST DAY)’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항시, 영남권 창업 생태계 협력 확대

유망 스타트업 발굴 ‘부스트 데이’

포항시는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가 14일 체인지업 그라운드 포항에서 영남권 창업 생태계 협력 확대를 위한 ‘2026 부스트 데이(2026 BOOST DAY)’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스트 데이는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대상을 영남권 전체로 확대했다. 행사에는 경북·경남·대구·부산·울산 등 6개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와 벤처캐피털(VC), 액셀러레이터(AC), 포스코그룹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홍정락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장의 환영사에 이어 영남권 6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포항시는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공모 도전을 앞두고 상반기 창업도시로 지정된 대구, 울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포항형 창업 생태계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충남 여성 1000명 모여 성평등 의지 다져

제41회 충청남도 여성대회 성료

충남도가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여성의 사회 참여와 권익 증진,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도는 14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제41회 충청남도 여성대회’를 개최했다.

‘모두의 성평등, 더 넓고 더 깊게’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양성평등 실천 의지를 다지고 도내 여성단체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박수현 충남도지사와 도·시·군 여성단체 회원, 대전·세종 여성단체 임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K-POP고의 식전 공연을 시작

으로 유공자 표창, 결의문 낭독, 양성평등주간 기념 퍼포먼스, 특강, 화합 한마당 등이 이어졌다.

기념식에서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도지사 표창 등을 수여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양성평등 실천 의지를 다지고 기념 퍼포먼스와 특강을 통해 성평등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넓혔다.

시군 여성단체의 활동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는 화합 한마당도 진행됐다. 행사장에는 우리 농산물 판매관 6곳을 비롯해 충남사회서비스원, TBN교통방송, 논산세계탈기산업엑스포 홍보관 등이 운영됐다.

/충남=양대승 기자 zzica@

기차 타고 고흥 여행하면 최대 20만원 환급

고흥군, 철도·렌터카 연계 관광지원

고흥군은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 전라남도렌터카사업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철도와 렌터카를 연계한 ‘레일타고 고흥 착!’ 관광지원사업을 15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철도 이용객이 고흥까지 편리하게 이동하고 주요 관광지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군이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도와 관광지 사이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는 적극행정 사례다.

철도를 이용한 관광객이 조합을 통해

렌터카를 빌려 고흥을 여행하면, 정해진 지원 조건에 따라 1인은 최대 10만 원, 2인 이상은 최대 20만 원을 모바일 고흥사랑상품권 ‘착(CHAK)’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참여자자는 고흥에서 2식 이상 식사하고 관광지 방문 사진을 촬영하는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군은 관광객의 실제 방문과 소비를 지원 조건에 반영하고, 환급금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해 관광 혜택이 지역 상권의 매출로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고흥관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흥(전남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산청군

‘난축맛돈’ 내륙지역 최초 출하

산청군이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센터가 개발한 후배지 품종 ‘난축맛돈’을 내륙 지역 최초로 출하했다. 군은 14일 오후면 가마실권역농촌체험마을에서 열린 출하 기념식에는 국립축산과학원, 생산 농가, 난축맛돈연구회, 대한한돈협회 경남협의회 등이 참석해 부위별 전시와 홍보대사 임명식, 시사회 등을 진행했으며 요리연구가 홍신에 셰프와 문정훈 서울대 교수가 난축맛돈의 식재료적 특성과 산업적 가치를 소개했다.

난축맛돈은 국립축산과학원이 2005년부터 8년간 연구해 2013년 개발한 품종으로, 고급 육질의 제주재래후배지와 생산성이 좋은 랜드레이스의 장점을 결합했다. /산청(경남)=이도식 기자

경북교육청

교육체험센터 설계 당선작 선정

경북교육청은 ‘(가칭)경상북도교육청 영양교육체험센터 건립 설계 공모’에서 건축사사무소 마당 서준호 대표의 작품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영양교육체험센터는 폐교 부지를 활용해 학생 식생활 체험교육과 조리종사자 연수·실습,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선작은 기존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신규 시설을 증축해 중앙 대형 마당을 중심으로 기존 건물과 새로운 공간을 연결하는 개방형 구조로 계획됐다. /경북=김준한 기자